

사회

또 다른 성추행 교사 2명 현직 근무 중

경찰 "1996·97년 인화학교 뒷산·휴게실서... 시효 지나 처벌 불가"

혐의 부인하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하자 인정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 교사 2명이 지난 1996년과 1997년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데 이어 이들이 현재도 교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은 10일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날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화학교 교사 2명이 1996년과 1997년에 교내·외에서 당시 10대 초반의 학생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A교사는 1996년 인화학교 옆 뒷산에서 야외 수업 중 인적이 드문 장소로 여학생(당시 12세)을 따로 불러내 움푹이 못하도록 한 뒤 강제로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사는 1997년 6월과 7월 사이 인화학교 2층 교사 휴게실에서 홀로 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 여성은 2005년 당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9명 중 1명이며, 이 여학생은 최소 3명의 교사로부터 수년에 걸쳐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와 B교사 등 2명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에서 실시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자 혐의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A교사와 B교사에 대해 여학생 성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관련 내용을 광주시교육청에 기관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 2명이 현재 교직에 담당한 것 외에는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와 인사처 등에 대해서는 일일 함구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광주교육청 등 관할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화학교 재단이 정부가 지원한 교비를 빼돌렸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005년 당시 교사들이 혐의를 부인하도록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인화학교 측이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허위로

'실습증명서'(120시간)를 발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소 시효(7년)가 지나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 신분은 밝힐 수 없다"면서 "공소 유지가 가능한 시기에 범법을 저질렀는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교육청에서 이들의 신상 변동 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 기관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인화학교에 대해 위탁교육 취소를 통지했다. 학교측에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회 일은 오는 24일로 잡혔으며 이 절차를 거쳐 위탁취소가 최종 확정된다. 재학생인 학생 22명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 조치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일 빠진 경찰

광주북부경찰 근무시간 체육대회 술판

광주북부경찰서 직원들이 근무 중 청사 주차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며 술판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정보과·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7일 오후 4시께 복구 오치동 북부경찰서 1층 주차장에서 체육대회를 열었다.

해당 과(課) 경찰관들은 이날 단합차원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김재석 북부경찰서장도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들이 술판을 벌일 당시 형사과·수사과·교통과 등 나머지 부서들은 정상 근무 중이었다. 체육대회를 겸한 단합대회는 이날 오후 7시께에 끝났다.

이 모습을 지켜본 민원인들은 "대낮에 경찰관들이 청사 안에서 근무 중 술판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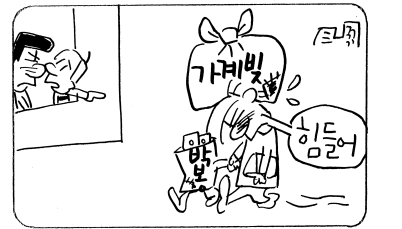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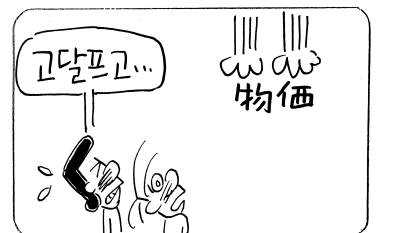
민원인 김모(43)씨는 "공익근무요원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라고 해서 주차한 뒤 와 보니, 경찰관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었다"며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보였다. 다른과 직원은 근무하는데, 한쪽에서는 술판을 벌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북부경찰청은 이날 정보과·생활안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대한 체육대회는 당분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가졌는데, 근무 중 술을 마시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413) 김중두



승용차, 전신주 들이받아 강진·진도서... 3명 사망

10일 오후 2시21분 강진군 대구면 수동리의 한 도로에서 이모(56)씨가 몰던 스타렉스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가 숨졌다. 앞서 이날 오전 7시6분 진도군 의신면 첨계리의 한 도로에서 고모(33)씨가 몰던 오피러스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고씨와 동승자 안모(36)씨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i@

군수 음해 내용 검찰청 등 흠피 우려

○전남지방경찰청은 10일 박우량 신안 군수 등을 음해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를 구속.

○김씨는 지난 6~7월 박 군수가 선거법 위반 사건 제판을 앞두고 법원장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을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홈페이지에 4차례 올린 혐의.

○김씨는 방송사 등에도 팩스를 보내 같은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군수 선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는데 보상해주지 않아 인터넷 등에 있는 글을 옮기기로 했다"고 주장.

/이종행기자 golee@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6명 중 2명만 실형 받아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현황	
성명	내용
김모 전 교장	• 2005년 10월 의원면직 • 2008년 7월 형소심 징역 2년6월 집유3년 • 2009년 7월28일 사망
김모 전 행정실장	• 2005년 7월 의원면직 • 2008년 1월 징역 8월
이모 전 생활지도사	• 2008년 1월 징역 6월
박모 전 생활지도사	• 2008년 7월 형소심 징역 10월 집유2년
김모 전 행정실 직원	• 2006년 12월 검찰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2007년 6월 복직 • 2010년 4월 의원면직
전모 교사	• 2008년 1월 공소기각 판결(공소시효 7년 초과) • 현재 인화학교 근무중

* 96~97 성추행 교사 2명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교사 2명이 지난 1996년과 1997년 인화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 사건이 공분화한 후 사법처리되거나 대상이던 가해자만도 6명이다. 이들에 대한 최종 형량은 2명 실형, 2명은 집행유예, 2명 공소시효 소멸에 따른 공소기각과 불기소였다.

지난 2005년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의 기소된 당시 행정실장 김모씨는 지난 2008년 1월 징역 8월을, 교사 이모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화학교에서 퇴직했다.

당시 교장 김모(2009년 사망)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

장애인 시설·학교 인권침해 전수조사

조현오 경찰청장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사실상 재조사 중인 경찰이 관련 부처와 전국 장애인 시설 및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행, 성폭행 등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전국 장애인 시설과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 성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통보해 추가 조치를 유도하고 경찰 역시 상황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인화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나 제단 비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태를 철저히 파악해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A공익근무요원이 지난달 8일 오전 10시에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근무 중 TV 모니터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으나 경찰이 은폐하려 해 비난을 사고 있다.

A공익근무요원은 광주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인 아들인 것으로



독감예방주사 맞는 어르신들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10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접종은 오는 21일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5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보안협력위원 아들 끌고러왔나

광주경찰 공익요원 사무실서 난동... 은폐 비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 중 사무실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으나 경찰이 은폐하려 해 비난을 사고 있다.

1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 소속 A공익근무요원이 지난달 8일 오전 10시에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근무 중 TV 모니터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으나 경찰이 은폐하려 해 비난을 사고 있다.

A공익근무요원은 광주경찰청 보안협력위원회 위원인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공익근무요원은 광주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에서 경비계로 인사조치된 상태다. 문제는 경찰이 이 사건을 감추려다가 경찰청 감사팀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점이다.

A공익근무요원 소속인 경비교통과는 지난달 말 광주경찰청 수사과에 이 사건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경찰청 감사팀이 사건 진상 파악에 나선 직후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복장이터 전문점

전복장이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이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번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호텔,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50m, 4층, 4층, 4층, 4층

전복장이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다들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돌잔치, 피로연, 세미나 각종 모임 및 행사 (500석 완비)

소모임(룸) :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대모임(룸) : 52인석, 92인석, 150인석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토·일·공휴일
이용시간 (중학생 이상)	이용시간 (중학생 이상)
11:30-22:00	11:30-22:00
성인 25,000원	성인 29,000원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12,000원	취학어린이 (초등학교생) 18,000원
미취학아동 (5세~7세) 8,000원	미취학아동 (5세~7세)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 671-1199
유·스퀘어 문화관 2F CGV 옆 터미널 2층